

전주시, 정부3.0 협업분야 '대통령상'

열린교육 바우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학원비 등 지원

전주시가 민·관 협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 선 우수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정부3.0 협업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력을 가치로 추구하는 정부3.0 협업 포상 심사를 통해 지난해 사업 추진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전주시를 비

롯한 최우수상 2곳과 우수상 4곳, 장려상 5곳 등 총 11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부3.0 협업분야 평가 우수사례는 '열린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전주시 학원 연합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원비

와 교재비 등을 전주시가 50%, 학원이 40%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주시 초·중·고 학생 104명과 중학생 160명 등 264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 수혜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개방·공유·소통·협력력을 가치로 추구하는 정부3.0의 생활화를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인접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거리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추구하는 '전주푸드플랜', 의사회 등과 협업을 의료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이다. 이일홍 과장은 "정부3.0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올해도 정부3.0의 생활화를 목표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한지산업지원센터 방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찾아 업무보고시 확인하기 어려웠던 현장을 직접 둘러 보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실

시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전시실, 교육실, 공연장, 공방, 체험관 등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은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이웃 주민 살해한 20대 검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16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B(26)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B씨가 모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모퉁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나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짜러보는 등 건방지게 굴어 기분이 나빴는데 이날도 담배를 피우면서 나를 짜러봐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밤철 현장 700~800m에서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용주 기자



"무더위가 즐거워요" 22일 야외수영장에서 어린이가 한낱 무더위가 즐거운 듯 시원한 물장구를 치며 여름을 즐기고 있다.

전주 신중양시장서 '한 여름밤의 무비 피크닉' 행사

30일 개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

전주시가 여름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전주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박광철, 이하 사업단)은 오는 30일 신중양시장 내 청춘밀당 옥상에서 '한 여름 밤의 무비 피크닉'을 개최한다. 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소함에 따라, 여름밤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단은 이번 행사를 신중양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보고 즐기는 자리로 꾸며 전주신중양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 시장상인들을 위한 시원한 축제를 마련했다"며 "문화적으로도 전주신중양시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전통시장육성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신중양시장과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을 만들기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 모집 신청은 사업단(063-271-8883)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술집 여중업원 폭행 5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운현 판사)는 지난 22일 단란주점에서 여중업원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 11일 오전 0시35분께 전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A(50·여)씨가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곡한데 불만을 품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고속도로순찰대, 과속차량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방홍)는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과속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순대 제9지구대는 이동식무인단속 카메라 4대 등을 활용해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순대 9지구대는 올 들어 현재까지 과속차량 3만5000여건을 단속, 휴가철인 7월에만 3700여건을 단속했다.

특히 대형사고 발생이 많은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과속운전을 집중단속,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방홍 대장은 "고속도로 과속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피해가 심각하므로 휴가기간 과속차량 집중단속과 예방순찰로 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환경부, 'OIT 방출 필터' 추가 공개

공기청정기 51·에어컨 33종

환경부는 22일 독성물질 유출이소티아졸린(OIT)을 방출한 필터가 포함된 공기청정기 51종과 가정용 에어컨 33종을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20일 OIT를 방출한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모델명만 공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O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CMIT)과 유사한 물질이다.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OIT 방출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판매한 회사는 7개사다. 업체별로 쿠쿠(21종), LG전자(15종), 삼성전자(8종), 위니아(4종), 프렉코(2종), 청호나이스(1종) 순이었다. OIT 방출 필터가 포함된 가정용 에어컨을 판매한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5종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날 OIT를 방출하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형)도 추가로 공개했다. 이들 필터는 모두 3M에서 제조한 것들로 마스터케미칼, M2S, KCM, 청솔 등 대리점에서 판매했다. /박용주 기자

OIT 함유 차량용 에어컨 필터 판매사는 현대모비스, 두원, 마스터케미칼, M2S, KCM, 청솔, Genpen 등 7곳이다. 해당 필터는 카렌스II, 카니발, 에쿠스, 모닝, 싼타페, 이반떼, 쏘울 등 대부분 현대·기아차에 장착됐다. 환경부는 OIT 함유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와 가정용 에어컨을 판매해 온 기업들이 지난달 15일부터 OIT가 함유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에게 판매된 제품의 회수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OIT가 함유된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 3종과 차량용 에어컨 2종을 대상으로 사용 전후 OIT 함량을 분석한 결과 5일간 가동한 공기청정기 내 필터에서는 OIT가 최소 25~46%, 8시간 가동한 차량용 에어컨 내 필터에서는 최소 26~76%까지 OIT 방출했다고 20일 밝혔다. 3M이 제조하고 쿠쿠가 판매한 공기청정기 내 '4in1 해파 필터', 3M에서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판매한 차량용 에어컨 내 'Mobis Besfit 필터'의 위해도가 특히 높았다. /박용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